

# 숨바꼭질

중촌 마을 정을순

오만 데

한글이 다 숨었는 걸

팔십 넘어 알았 다

낫호미 괄이 속에

ㄱ ㄱ ㄱ

부침 개 접시 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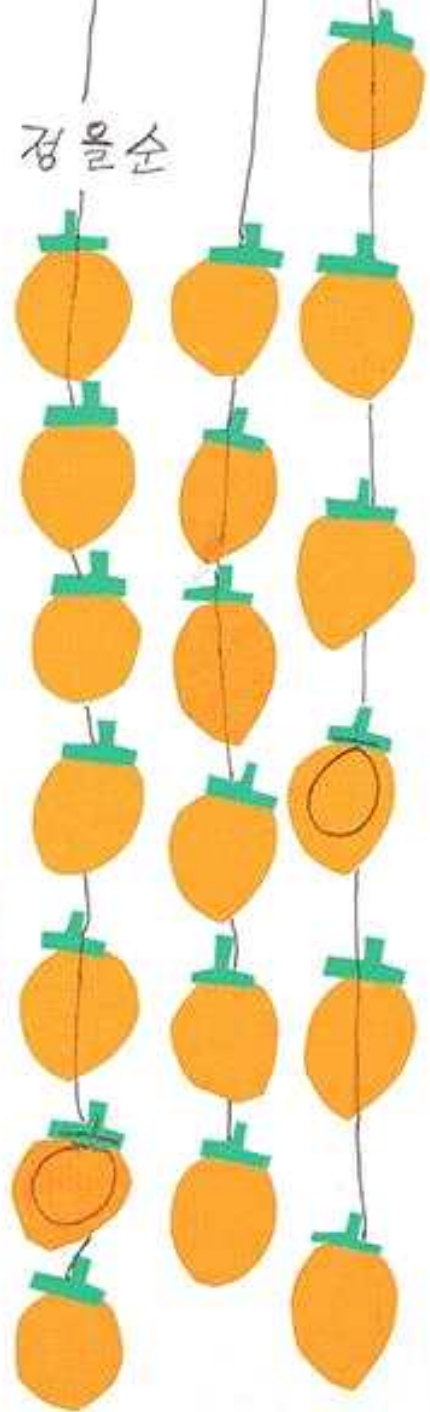
ㅇ ㅇ 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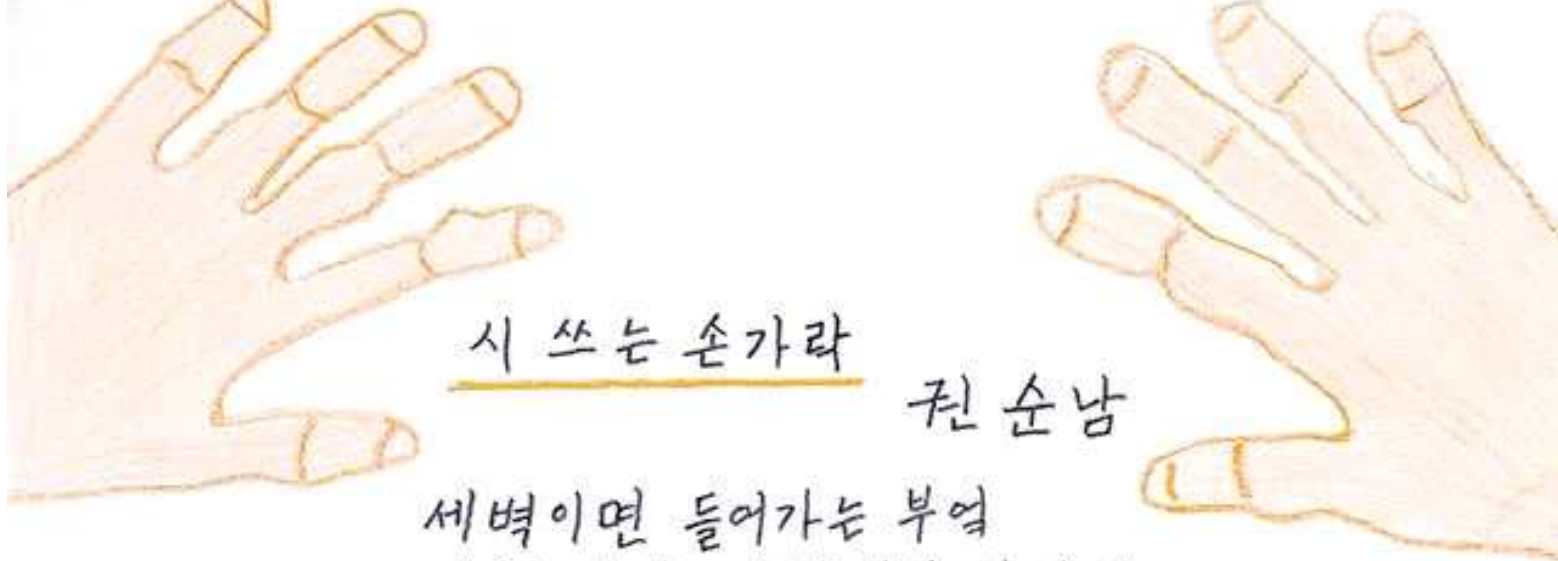
달아 놓은 꽃감 엔

ㅎ ㅎ ㅎ

제아 무리 숨어 봐 라

인 자는 다 보인 다





시 쓰는 손가락

권순남

세벽이면 들어가는 부엌  
세월 따라 변해버린 뽕비가  
나를 반겨준다

손잡이 떨어진 뽕비  
옆구리 꼭 들어간 뽕비  
점박이 뽕비  
예쁜 딸이 사준 뽕비  
꽃 그림 미느리 뽕비

죽 늘어 놓고  
마디마디 굵은 손가락으로  
손녀처럼 피아노를 쳐보고싶다

아들아  
굵은 손가락으로  
어미가 시를 쓴다



# 내 친구 보행기



사랑반 성을학 85세

아침 일찍 먹고 내 친구랑 동네 한 바퀴 돌았다.

살구가 노랗게 열렸다.

친구 호주머니에 따서 담았다.

친구는 글공 부하러 가자고 나를 재촉한다.

책도 친구 가방에 넣었다.

집을 나섰다.

걸어가다가 다리가 아프면

친구는 의자를 내어 준다.

동네 앞 맘산다리 건너가면서 노래도 불러 준다.

삼문동 가로수 나무그늘에 앉으니

친구 호주머니에서 살구 하나를 꺼내 준다.

글공부 친구들이 빨리 보고 싶어 다시 넣었다.

내 친구 보행기가 나를 잡아 당긴다.

나는 교실에서 공부한다.

내 친구 보행기는 복도에서 나를 보면서 기다린다.



# 돋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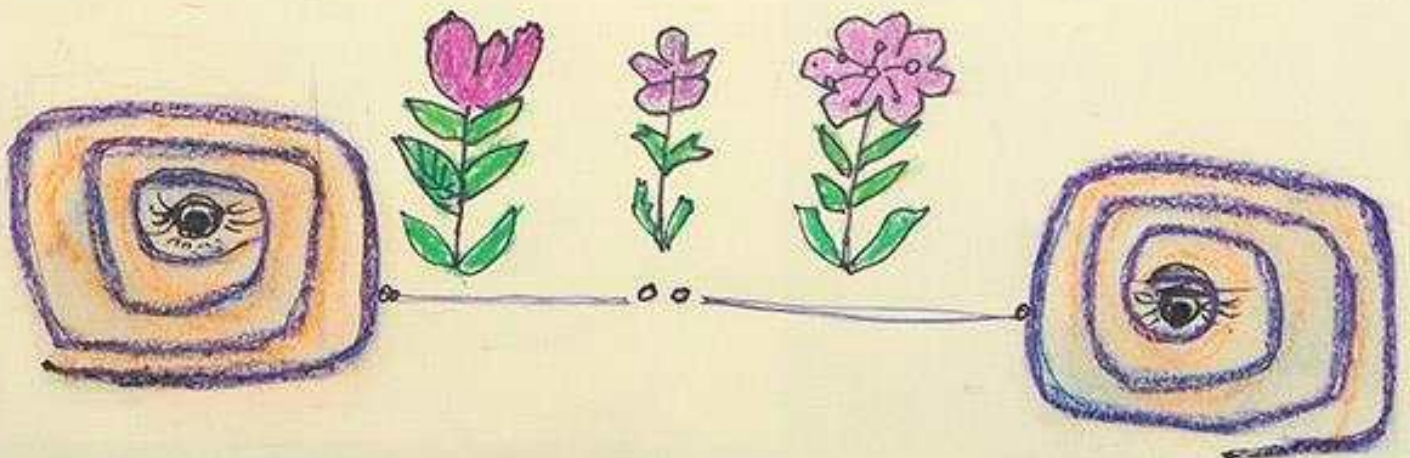
안 의 중 학 교  
문 해 반 최금선

머느리하고 안경집에 갔다  
연필로 그은 줄이 두 줄로 보였다  
돋보기를 맞췄다

작은 글자가 똑똑히 보였다  
체에 묻은 김치 국물도 보였다

잡자기 앞집 할머니가 멋져 보인다  
그동안 서운 했던 머느리가 예뻐 보인다

돋보기야  
앞으로 너만 믿는다





마음이 말한다



가산마을 이봉금

집에 왔으면  
마음이 말을한다  
심심하다 심심하다



회관에 오면  
마음이 말을한다  
즐겁다 즐겁다



한글 공부를 하면  
마음이 말을한다  
글자 배우니 장하다  
한글 원어니 잘한다



필통에 연필 깎아 넣으며  
마음이 말을 한다  
오늘도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제는 .....

고성군 하장 학당 유진순

내 인생은 겨울철 나무 같이 왔는데  
이제는 내 인생에 봄이 왔네  
추운 겨울 견디내고 피어나는 봄 꽃처럼  
나에게 글자 꽃이 피었네  
내 나이에 글 배우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연필도 제대로 잡을 줄 몰랐는데  
손자가 와서 동화책 읽어 주라고 하면  
"할매 바브다" 솔뚜껑만 열었다 말았다.  
솔뚜껑이 반질반질  
이제는 손자가 언제 올까 기다려지고 동화  
책이 내 손에 왔네  
내 인생의 소원은 자식끼 편지 써보는 것  
늘 말 못 하고 마음에만 품고 살았던 "며느  
아 사랑한다" "사위야 고맙다" 라고  
쓸 수 있어 행복하다네  
내 인생에 글자 꽃이 활짝 피어  
아름다운 내 인생 꽃이 피었네



작품명 이제는.....

출품자 유진순

소속 고성군청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 '고성학당'

# 저절로 뿔힌 대못

성산노인복지관 정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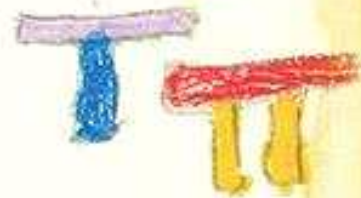
가난했던 어린 시절  
연집 도라 친구가  
“니는 학교 안 텅기나?” 하고 물었다  
그 한마디가 내 어린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젊은 시절, 방적공장에 다녔다  
어느 날 작업반장이  
“한글 몰라요?” 하고 물었다  
그 한마디가 내 젊은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모진 세상 풍파를 힘겹게 이겨내고  
예수를 훌쩍 넘어서  
딸의 손에 이끌려 한글반에 왔다



한글을 읽고 쓰고, 구구단을 외운다  
수업하는 날이 기다려지고 배움이 즐겁다  
그 언제인지 나도 모르게  
내 가슴속 대못이 저절로 뿔히고  
마음은 두둥실, 희망으로 쏠린다



# 사랑의 의처증

박윤기

허리가 아픈 며느리 집에  
양산에서 부산까지 매일 출퇴근

늦을 까봐 허둥지둥  
숙제를 못해 마음이 심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이 주신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읽고  
나혼자 깔깔깔

힘든 것도, 고달픈 것도  
공부를 하면 모두 다 사라져~

남편이 피곤해 보이니 쉬라하여도  
학교는 절대로 빠지지않고 등교

자기야! 선생님이 남자라서 안빠지고갑니까?  
허허허 어이가 없네요

남편이 나몰래 수업시간에 와서  
창문 넘어 땀땀땀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응원할게요 자기야 사랑합니다.







# 나비

안의중학교  
문해반 이의숙

감자밭에 갔다  
큰아들한테 보낼 감자가 퐁퐁하다  
감자꽃에 나비가 날아왔다  
나도 공부를 했더라면  
나비처럼 세상 끝까지 가봤을텐데  
나비가 앉으려다가  
호미에 쳐날개가 떨어졌다  
우짜꼬?

날개가 꺾여날지 못하는 나비가  
늦깎이 공부하는 내신세 같다



# 졸업반 할머니

김순선

문해교실 졸업반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루, 이틀, 사흘 가는 달력이 눈에 보여요  
내 이름자 있는 우리 집 문패도 보여요  
일기장에 고물고물 기어가는 이야기까지도 보여요

졸업반이 되니 다리가 바빠져요  
조카 집에 가는 버스를 찾아 탈 수 있어요  
딸집에 가는 버스도 가려 탈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가신  
당신 집에 가는 버스는 없나요?

졸업반이 되니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선생님 곁을 떠나야 하고  
정다웠던 친구들도 헤어져야 하고  
나의 교실, 운동장도 이별인가 봐요!



# 잘 좀 써 보이소

## 박신자

글씨 써라 하는 것이 무서워  
주민등록 재발급도 머느리를 따라 겨우 가면 나  
보건증을 하러 가던 그날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간신히 입을 열어 이것 좀 쓰어 주이소  
앞에 앉은 직원이 하는 말 잘 써 보이소  
어저 할 줄 몰라 이사람 저사람 얼굴만 보다가  
마음씨 착해 보이는 총각 얼굴을 보고는  
주민등록증을 내밀며 이것 좀 쓰어 주이소  
부끄럽고 미안한 그 시절 내 이야기

세월이 흘러 칠십 넘어 입학한 문해교실  
숨기고 살아온 글 못 쓰는 내 모습은 털어내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학교 고마운 학교

지금은 자신감으로 한문 영어도 내 평생 처음 배우네  
이제는 아들 앞에서 ABC... 외며 자랑하는 나  
남은 시간도 열심히 공부 해야지



작품명 잘 좀 써보이소

출품자 박신자

소속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 택배

## 차분점

택배가 왔다  
아들이 보냈다는 전화가 없어  
우리 택배 아니라고 했다  
주소를 보니  
옛날 우리 집 주소가 맞는데  
이름이 내 이름 차분\*  
앞두 자는 맞는데 끝 자 안 보인다  
아들이 영감한 태보낸 선물이었다  
차분점이라고 또 박 또 박 찍어 주면  
즐거워 텐테.....  
오해 꽃을 그려 놓아 헛갈리게 해



나는 욱쟁이 할머니



이희선

동생 돌보나라고 공부를 못하고

열일 몸살먹은 해 심달에 시집을 와보너

울도 답도 없는 집이라 주물라해도 문힐 양이 없어 못죽을 판이더라

신랑은 정들 새 없이 삼개월만에 큰대를 가고

홀로 제신 시어머니 모시고 한 밤에서 나무를 해 때면서 삼년을 살았네

삼년 만에 제대하고 온 남편은 노니라고 1년 2년 집에 안들어오고

겨우 2년 그해 비가 마녀 와서 보리가 다 썩어 열년을 보리죽을 먹으면서

막이죽을 생겼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

29살에 낮에는 식당하고 밤에는 장사하니

친정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발발음도 안하시교

환장 해서 주물라해도 줄줄이 자식 5남대 험쟁에 죽지도 못했네

10년 20년을 살아도 가슴 속에 끝도 없이 맺힌 한

화가 치밀어서 되게 참다 참다 못참게 되면

나도 모르세 욱이 튀어 나오더라

쌍목을 피부고나면 가습이 두드미고 수이 후련해져

시도 때도 없이 욱은 튀어나오고

나는 욱쟁이 할머니가 되었네

동네 사람들 미안시 랍소

그라도 욱없었으면 나는 벌써 주어버렸을지

근테 우리 장손은 욱쟁이 할머니가 뭐가 좋다고

저렇게 나를 좋아할꼬

나를 용서하는 장손아 참 미안한데이



작품명 나는 욱쟁이 할머니

출품자 이희선

소속 산청군청 찾아가는 문해교실 지리산학당

# 나는 할머니 학생

거류초등학교 정의두

나는 할머니 학생이다  
세과에 힘겹게 버티 견디어 왔다  
이제는 참 좋다

자식들도 자주와 준다  
밭 농사 소일거리도 하고  
오랜 바람이면 공부도 하고 학교도 간다

나의 삶에 여유가 생겼다  
꿈만 같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쭈글쭈글해진 얼굴이지만  
가방 메고 학교에 가면  
활짝 퍼지는 나의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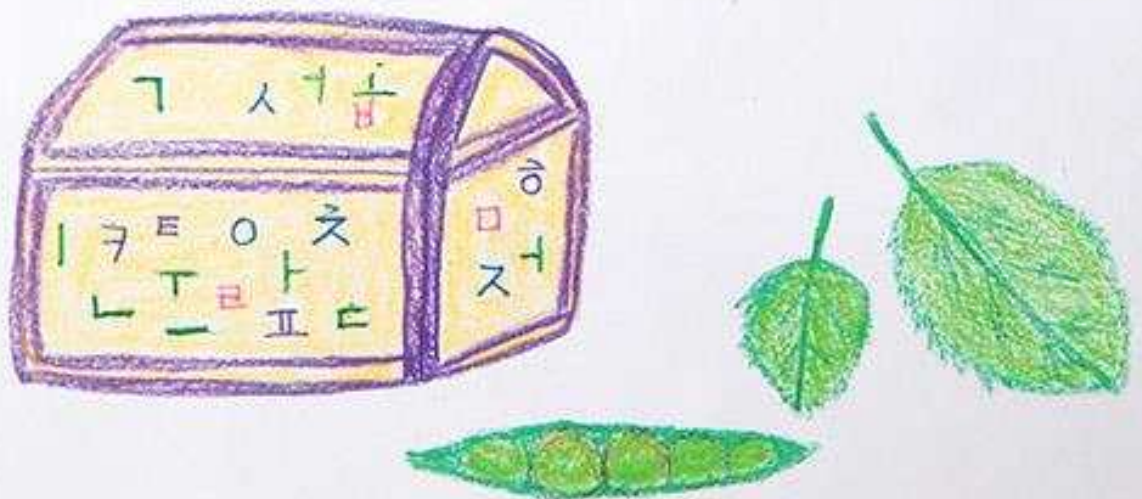
# 나의 금고

고성군 신은 학당  
이덕림

꺾었은 나의 금고  
삭삭 베고 나면 또 돌아나니  
이것이 바로 금고로 구나

예쁜 완두콩 지난번에  
푸르 드니 울긋불긋 예쁜 옷 입었구나  
콩대에 주렁 주렁 매달린 완두콩  
너도 나의 금고

보이지 않는 금고가 또 있다  
한자 한자 차곡 차곡 채우는  
머리속의 금고가 있어 더 즐겁구나



박경아

# 비너



## 쭈뼛머리

부모님이 주신 것은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평생 쭈뼛머리로 살면서 비너를 꽃고 살았다  
며, 분전 영감이 죽고 나니

몸도 마음도 많이 허전해졌다

같이 와 이제는 머리로만 질 수가 없어서

평생 처음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했다

동네 사람들은 보기에 좋다고 했다

나는 많이 편해졌다

고런데 우리 영감은 나중에

나를 알아 볼 수 있을까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영감 나 많이 보고 십제 나도





# 가난한 우리 집

박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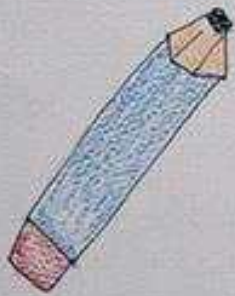
공부가 하고 싶어  
 나 혼자 가서 입학 신청을 하고  
 책과 공책도 없이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은 월사금을 안 낸다고  
 교실에 들어 오지도 못하게 했고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한테는 매를 맞았습니다



월사금을 내야 하는지도 몰랐던 교명이  
 복도 창밖에서 칠판을 보고  
 머릿속에 글씨를 쓰며  
 친구들을 기다렸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은 슬펐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는 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점으로 가는 길은  
 슬픔도 설움도 함께 웃으며 걸어 갔습니다

석달 만에 그만둔 학교  
 여덟 살 교명은 고부랑 할머니가 되어  
 책과 공책이 들어있는  
 예쁜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갑니다  
 책상에 바로 앉아 내 연필로 공부도 합니다

월사금을 내 주지 않은  
 92세의 친절 어머니를 한없이 원망했는데  
 이제는 고시절  
 어머니를 이해 할 수 있어  
 먼 길 가시기 전에 말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



나 에 기 뵘

장포교실 조 화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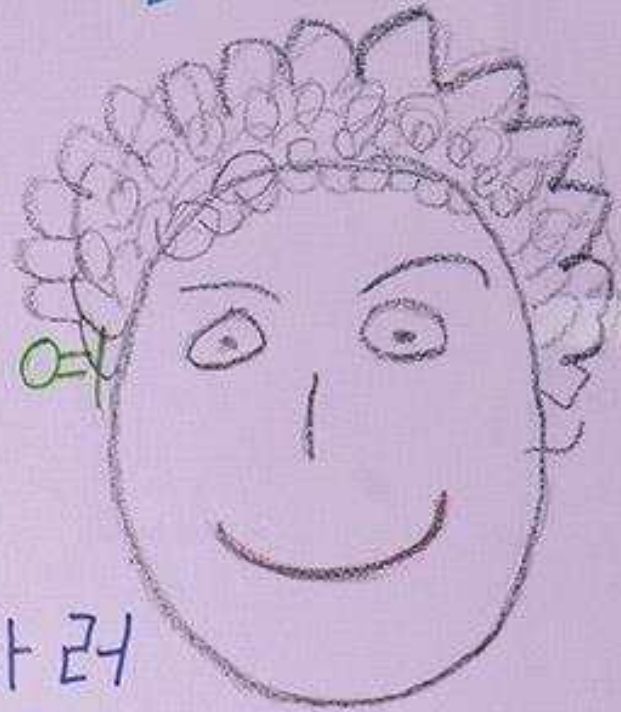


오늘도 바쁘다

손자들 아침 먹여

학교 보내고

나도 회관 공부하러  
가야 한다



집에 있어도 집을 몰랐고  
밥을 먹어도 밥을 몰랐다



인자는 안다

시장에 가면 간판이 보인다

누가 들을까 봐 마음속으로 읽어보고

또 읽어본다

작품명 나에 기뵘

출품자 조화순

소속 함안군청 찾아가는 아라가야 문해교실

딸이라 싫다

칠원 석전 임선희

어린적에 우리집은 부자다.

8남에 3째로 태어났다.

오빠들은 공부시키주고 나는 들에 나가

일하고 부역도 나갔다.

가슴이 답답하고 아버지가 마위 아들이

되고싶었다.

공부를 했어면 고생도 안했어킨테

살면서 원망도 많이했다.

지금은 공부를 하니 한 맥킨게 풀어

지는것 같다

세월이



공부약인지 모르겠다.



작품명 딸이라 싫다

출품자 임선희

소속 함안군청 찾아가는 아라가야 문해교실

# 즐거운 단장마을

단장마을 남경숙

창원에서 딸 셋 아들 하나 모두 대학까지 시키고  
딸 셋은 결혼을 다 보내고

남편과 둘만 밀양시 단장까지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 하고 그랬는데

노인정 가입을 하고 형님들과

정이 들다보니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지내는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농사도 모르고 여기와서 이웃에 김장도

도와주고 메죽도 도와주고

벼를 늘어 놓으면 같이 자루에 담기도 하고

노인정 도우미도 하고 보니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도 시작하니

선생님과 같이 배우면서 정말 즐겁습니다

경로당 도우미를 하고 보니

형님들이 밥을 잘자시고 수고 했다는 말을 들어올 때

정말 도우미를 잘 시작 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형님들과

동생들과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싶습니다



작품명 즐거운 단장마을

출품자 남경숙

소속 밀양시청 찾아가는 한글사랑 내디딤교실

배움

한미 학당  
배화자

나는 한글 배운다  
내 이름 배화자  
세 글자 글씨 쓸 줄 안다  
더듬 더듬 워어도



나는 행복하다  
차름타고 서울에 가도  
이제는 안무섭다  
한자 두자 읽으며 아들 집 찾아간다  
이제는 할 수 있다  
마음도 든든하다  
오늘도 나는  
더듬 더듬 숙제를 한다



작품명 배움

출품자 배화자

소속 창원시청 대산평생학습센터

비가 내리는 날에는

황영숙

비가 오는 창밖을 바라보다  
몸득 엄마 생각이 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엄마를 불러 보고 싶을 때는  
가슴이 멍멍해지고  
눈시울이 적셔 집니다.

엄마! 그곳에도 비가 오고 있나?  
여기는 비가 많이 오고 있다.  
엄마 걸어 다닐 때 길 조심해  
미끄러지지 않게 .....

비오는 날에는 엄마에게 편지를 씁니다  
뾰물인지 눈물인지  
몸살 그리움이 밀려오면  
예쁜 우산을 쓰고  
얼굴도 모르는 엄마 손 고추 잡고  
평생 소원이었음.  
나들이 한번 가보고 싶다고...

엄마 다시 태어나셔도  
꼭 내 엄마로 와 주세요  
그때 먼길 일찍 가지 마시고  
엄마 얼굴 꼭 보여주세요  
엄마 사랑합니다.  
꼭 불러보고 싶은 이름  
엄 - - 마



지금 이 행복이다

칠월석전 최규연

내 살든 동네는 학교가 업었다.  
엄마는 일하고 나는 동생 키우고  
학교 구경 문했다

시집 와서 일만 했다

한글 공부 한 다 해서 너무 좋았다

연필 잡아보니 가슴이 두근두근

줄이 알구지 비틀 비틀

손이 와그래 아프는지

이제 크지셔도 일고 눈도 발다

나는 행복하다

이것이 행복이다 배워 참 타행이다



# 고마운 며느리

오순리

칠남매 막내였던 어린 시절  
딸이라서 가 보지도 못했던 학교

그렇게 한평생을 글 모르고 살다가  
고마운 며느리를 만나서  
복지관을 오게 되었다

이제는 나 혼자 버스도 탈 수 있고  
은행 가서 돈도 찾을 수 있다

칠순이라고 맛있는 밥도 사주고  
예쁜 옷도 사주는  
우리 착한 며느리  
고맙고 또 고맙다 🍎





네팔에서 어린시절 5살때  
아기 동생 돌보며 밥해 먹고  
고시절이 기쁘고 행복 했어요.

민들레 꽃씨가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떠돌듯 전혀 다른  
저쪽 세상 한국으로 시집을 왔어요.

풍습이 다르고 말도 안되는 시집  
살이에 뜻 밖에 쳐들어온 고생  
고생이 한숨이 절로 났네

그와중에 첫째 딸의 미소뒀  
그 얼굴이 나에게 희망이 되고  
두째, 셋째, 넷째 보며 한국 사람다 되었네

자활센터 복지관에 일하는 중에 한글반 어울림에서  
그.니 한자 두자 배우니 즐겁기만 했어요.

알공 달공 246. 초생 셋 아이들과 함께 공부  
하는 이내 모습이 지금 여기 행복 하여라.



내나이 70이 넘어

박경숙

아들 딸 키워

손주 키워

내나이 70이 넘어 나를 키운다

한글 한자 한자 만나

친구 하나 둘 만나

세상이 행복하고 반갑다

갈곳이 있고

숙제도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 좋다

한글 배우는 날이 기다려지고

친구 들이 기다려지고

내 나이 70이 넘어 너무 행복하다



기쁘고  
기쁘고  
기쁘고  
기쁘고  
기쁘고  
기쁘고  
기쁘고  
기쁘고  
기쁘고  
기쁘고

# 배움의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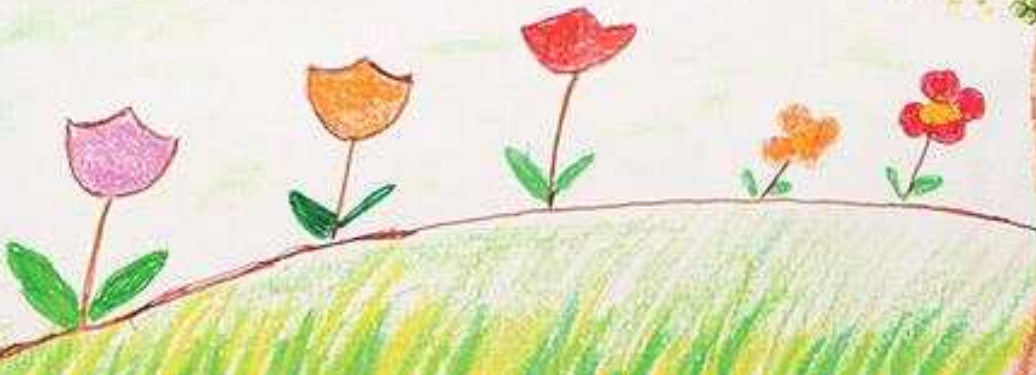
유호리

“앞집 할매 회관에  
글 배우러 갑시다”  
“팔십이 넘은 이나이에  
글 배워서 뭐할라고”  
했는데 장날 장에 가서  
물전 살때 가격도 보고  
밤먹으러 갈때 식당 간판도보고  
이집은 중국집  
저집은 국수집  
밤 사먹을때도 좋아요

# 한글 깨치기

장시자 (신전학당) · 고성

한글아 한글아  
들어 왔으면 나가지를 말지  
어제 배우고 오늘 또 배웠는 데  
돌아서면 깜깜  
미술 넣고 노래 넣고 한글 넣고  
자꾸 자꾸 넣다 보면  
치매는 놀래 달아 나겠지  
꽃한다 못한다 해도  
할수있다 할수있다 하니  
오늘하고 내일하고 또  
배워 보련다



# 새 세상

김찬선

80이 다 되도록 글도 모르고  
허우적거리며 살아온 세월  
내 인생 끄터머리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글을 늦게 알게 된 것이 아쉽고 원통하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글이  
내게 새 세상을 가져왔다  
편지도 쓰고  
장보러갈 때 메모도 해가고  
신문을 읽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안다

아들아! 딸아!  
엄마 걱정하지마라  
어디 가는 차인지 다 알고 딸수 있다.

해넘어갈 때

아름답게 물드는 노을처럼  
엄마가 딱 그 시절인 갑다



# 은빛 학당

구원2구 이순도

나어 팔십에 공부하니 새롭게 마음이

선배이네 창병어 점시꽃이 나물보고 썩은웃네

우리 책읽는 소리 듣고 급하게 컷나봐요

장분완영고 같이 공부 하자고 하는것 같아요



# 공부밥

묵어도 묵어도 배고프더라.

보리밥 퍼묵고 고매 쌀마묵고

배에 거러지가 들었는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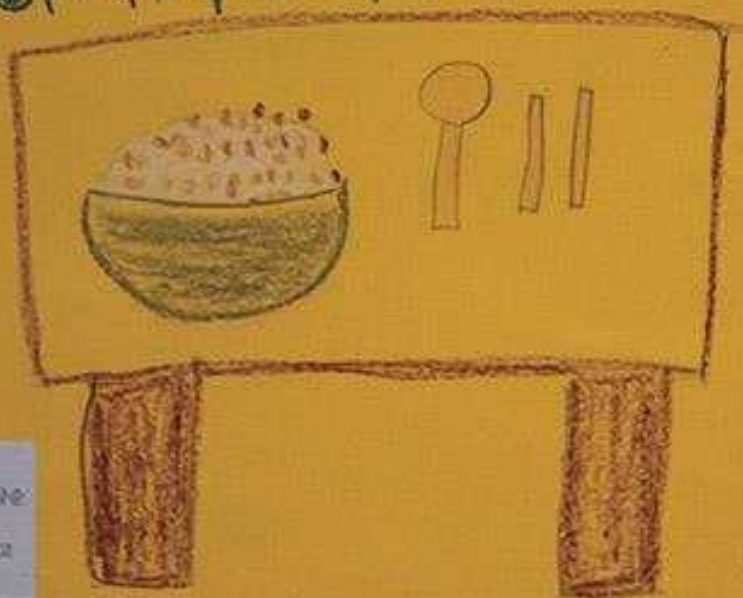
인자는 공부 배가 고프네

한글 공부 고봉밥으로 묵어도

한글자 티 퍼묵고 집다.

## 가나다라마바사

## 아자차카타파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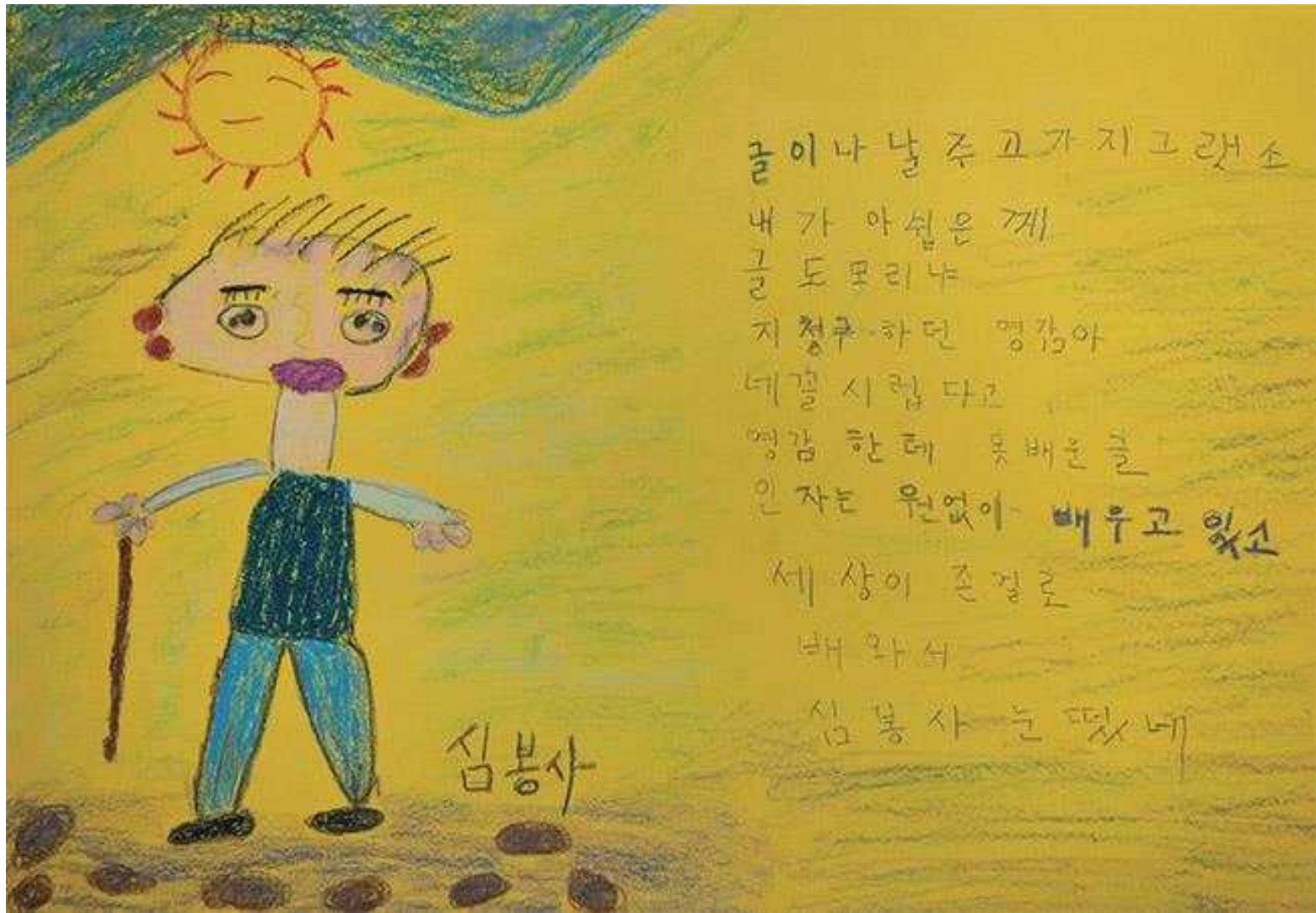
고구마

공부밥  
이삼순  
묵어도 묵어도 배고프더라  
보리밥 퍼묵고 고매 쌀마묵고  
배에 거러지가 들었는갑다  
인자는 공부 배가 고프네  
한글 공부 고봉밥으로 묵어도  
한글자 티 퍼묵고 집다

작품명 공부밥

출품자 이삼순

소속 하동군청 늘배움 문해학교





이제야 내 이야기를 쓴다

박상점

내 나이 팔십 줄에 들면서 연필을 잡으며  
이런 날이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기쁘기도 하고 손이 떨리며 걱정도 되네요

그래도 공부를 해서 내 이름이라도 써야지

내 평생 공부를 못해봐서 한이 되어요

아들딸 육남매는 꼭 공부시켜주겠다 결심하고  
육남매 성공하면 내 마음 알겠나 하고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지 우리부부 건강하기만 하면 되겠지 생각이 들어서  
내 몸 생각안하고 열심히 뉘바라지 했지요

덕분에 아들삼형제 대학마치고 열심히 사는 것을 보니  
맘이 좋지만

우리 딸내미 정상대 합격해도 못 보내서 파름에 가시가 있네요  
미안해 우리 딸내미

나도 이제야 학교 다니며 연필을 잡아  
이제야 내 마음을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작품명 이제야 내 이야기를 쓴다

출품자 박상점

소속 산청군청 찾아가는 문해교실 지리산학당

# 지금은 괜찮아

장판순

나는 어둠 속에 살면서 하루하루  
배우면서 지금은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있다 왜 나는 동창생이 없나  
생각하면 너무나 슬프지만 지금은 괜찮아  
우리 예쁜 손자 손녀에게 편지도 쓰고  
문자도 한다 우리반 언니 친구 모두  
나에게 힘이 된다



사는 것

눈물이난다  
 항상 눈물이난다  
 팔들이 잘해주고 손자사위도 좋으며  
 그냥 눈물이난다  
 죽은 영감도 밭고아들도 밭고  
 편지를 쓰고 싶어 공부용 시자 했는데  
 그냥 못쓰는 것 같아 눈물이난다  
 잘못된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못된 것 같을까  
 고향을 떠나 딸 집에 왔지만  
 선생님도 고맙고  
 마을회관에서 잘 태조크다 좋으며  
 나는 눈물이 자꾸 자꾸 난다



나의 꿈



한 모 닥 당  
임 송 옥

일본 선생님에게  
배웠던 일본말  
625 전쟁으로 잊어버리고



마을 사랑 채이씨  
배웠던 한글  
시집살이로 잊어버리고

목화 실 배고  
삼으먼 씨 드  
배우고 싶었던 한글

마누라 영나

모리 백으로 살며  
잊어버린 한글공부



중손녀 읽던 동화 채 읽고 싶어  
생각난 나의 꿈  
한글공부

작품명 나의 꿈

출품자 임송옥

소속 창원시청 대산평생학습센터

# 내 짝궁 윤기

김순중

윤기야, 이 글자 머꼬?  
순중아 따라 읽어봐

같이 읽으니  
어라 쉽게 읽혀지네

이제 니 혼자 읽어봐  
내 모르 게따  
속상해 아이고

그럼 또 따라 읽어봐  
그래 고마워



# 부처님 오신 날

정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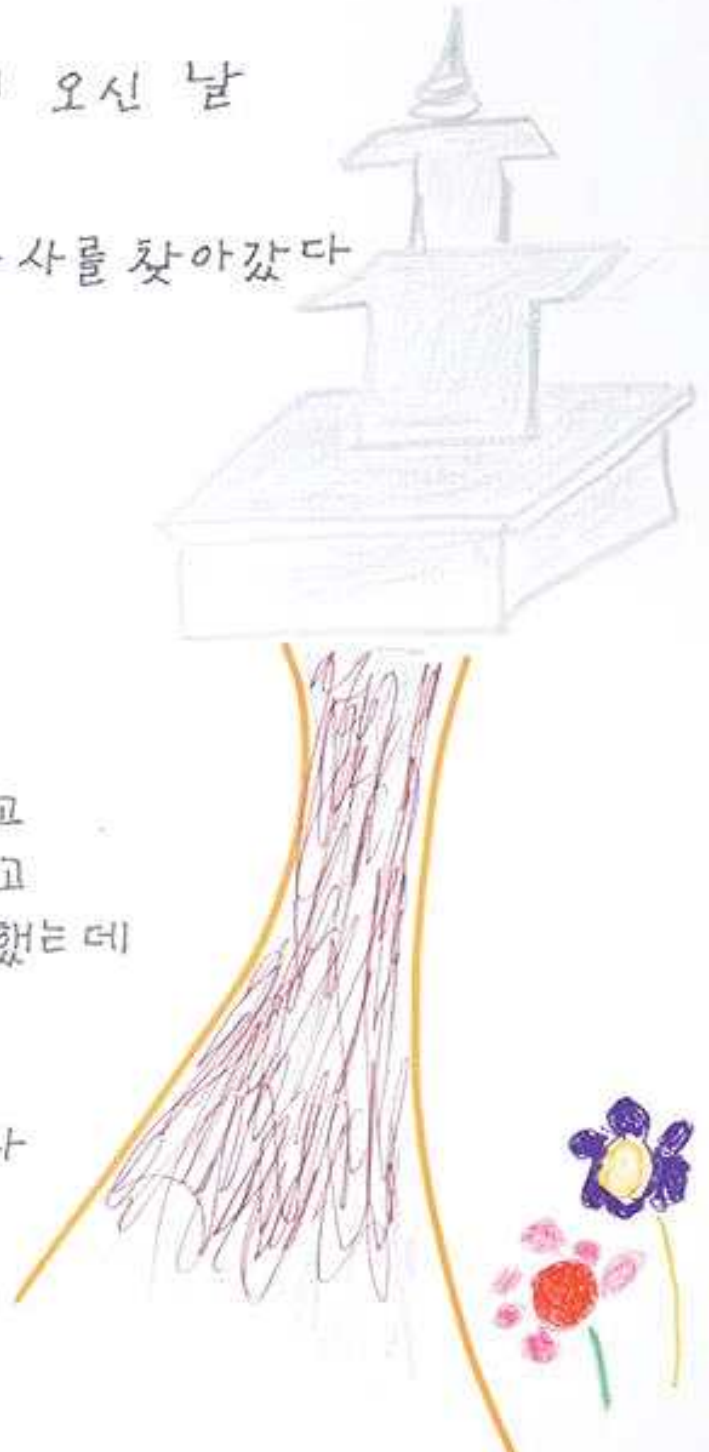
해마다 찾아오는 부처님 오신 날  
올해도 어김없이  
복지학교 친구들이랑 불곡사를 찾아갔다

올해도 어김없이  
두 손 모아 기도드린다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다  
한글 배우기 전에는  
옆 사람 따라 들어가고 나오고  
옆 사람 따라 신발 신고 벗고  
옆 사람 따라 화장실 가곤 했는데

이젠 내가 직접  
안내판 읽어보고 스스로 한다

아는 것이 나의 힘이다  
복지학교가 나의 힘이다



# 허성조

## 항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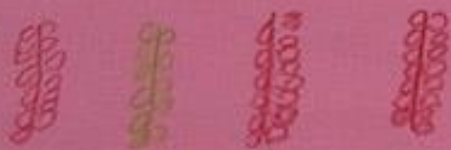
어머님 손 끝에서  
반짝이던 항아리  
세월의 때가 묻은 검은 갈색  
배고픈 어린 시절을 생각하니  
독에서 어머니의 냉새가 나네  
항아리 옆에 맨드라미  
홀로 피어 기다리지만  
우리 어머니는 오시지  
못합니다



# 숨 쉬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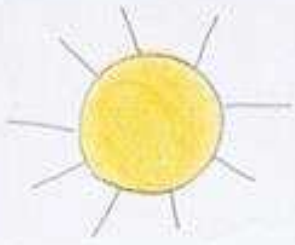
횡천면 상남마을 박덕선

봄이 다가 오 제  
하심 허 다  
아들 떠난 봄이 제  
글이나 안고  
살아야 숨을 쉬 겠다



숨쉬기  
박덕선  
봄이 다가오니  
한심하다  
아들 떠난 봄이니까  
글이나 안고 살아야  
숨을 쉬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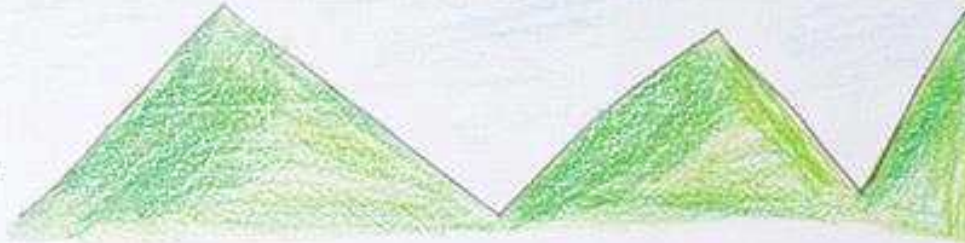




학교 가는 길  
김해도서관한글배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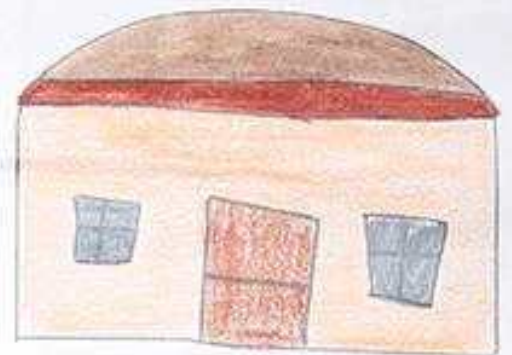
김영숙

학교 가는 것이  
제일 즐겁고 행복하다



어렸을때 책 보따리 옆에 끼고  
학교에 가는 친구가 부러웠다  
동생들 학교에 가고나면  
나도 동생들 책 보따리 옆에끼고  
마당을 왔다갔다  
흙내도 내보기도 했다.

정말 해보고 싶었다.



넋으막에 꿈이 현실이 되었다.  
책가방 메고 나는 오늘도  
신나게 학교에 다닌다.



# 행복한 나의 식구

삼계문해 3단계 신연순

매일 같이 반복되는 식사  
시간 되었을 혼자 밥상 머리  
앉는 사람이 숟가락 젓가락  
식구가 되지요

숟가락 젓가락도 나를  
반겨주고 입으로 자꾸만  
들어가게 하네요

나의 식구는  
숟가락 젓가락이지요



# 너무 미워요

한울학교 김영례

나는 공부가 하고 싶었지만  
집에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한지 삼개월입니다  
부모님이 너무 미웠어요  
밤에도 자다가 생각하면 부모님이 엄청나게 미워요  
남편에게 무지당하고 시집에서도 무시하고  
얼마나 울고 살았는지 부모가 미워요

다른 자식은 공부시키고 나는 공부시키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 진짜 미워요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이 세상을 살았답니다  
내 친구는 글도 못 배우고 그만 죽었습니다

좋은 세상에 살았더니  
지금은 공부도 하고 즐겁습니다  
글을 한자 한자 알고 보니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제라도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곳에 놀러 다니고 싶습니다



# 한글 공부로 설레는 내 심장아, 고마워!



손정애

67년 사는 동안

늘 가슴 졸이며 산 내 **심장!**

자식들 학교 숙제 물으면 두근 반, 세근 반!  
요지경 세상살이 글 몰라 두근두근! 콩닥콩닥!  
이 핑계 저 핑계 둘러대느라 두근 반, 세근 반!  
세상 살면서 글 모르는 죄, 아닌 죄로  
내 **심장** 상처투성이 견딜 수가 없었구나!

작년 겨울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고 싶다!"

한 마디에 화들짝 놀란 가족 긴급 회의!  
서울 아산 병원에서 수술 성공!

퇴원하니 병상 침대, 보행보조기 등등  
가족의 무한 사랑! 선생님 염려와 격려  
그동안 세상과 못한 소통하라고  
새로 태어난 내 **심장!**

한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네요.  
매주 한글 교실에 글 꽃 피우러 갈 때  
행복한 **심장** 소리!  
발걸음도 가볍게  
설레어 두근두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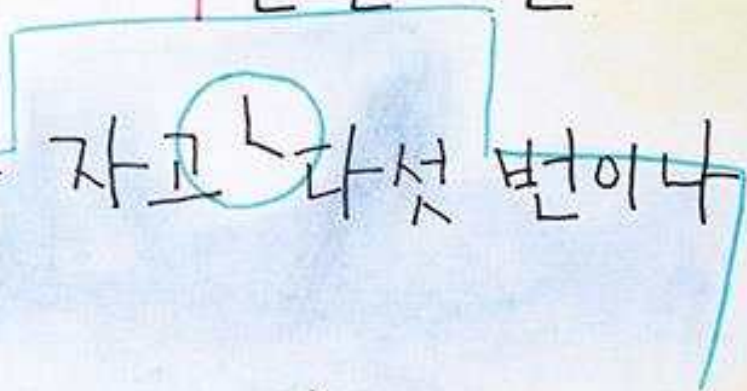


작품명 한글 공부로 설레는 내 심장아, 고마워!  
출품자 손정애  
소속 김해시청 회현동행정복지센터

# 숙제



배상례

오늘 숙제는  날말 열 번 쓰기다.

 잠도 못 자고 다섯 번이나 썼다.

선생님이 보고 잘했다고 했다.

참기름이 등등 더 올랐다.

  열 번 씬다.

#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

완월 초등학교 배움교실

2단계 황말연

내 평생 처음으로  
학교란 곳에 갔어요.

내 가슴은 시집가는  
작사처럼 콩닥거렸어요.

처음 발아보는 책과 공책이  
어제는 나의 친구가 되었어요.

책을 받아들고 너무 좋아  
울고 또 울었어요.

지금은 자고나면  
잘곳이 있어 너무 행복해요.

학교에 가면 공부도 하고  
행복한 내일 꿈을 꾸어요.

칼 들지도 보지도 못했던  
눈과 귀가 밝아지고 있어요.

늦은 나이지만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생각해요.



# 배움

배운선

글을 몰라서

아무것도 할수없고

볼수도 없었다.

이제는 글을 배워

조금이라도 일거마는

아직은 잘 모르겠네

선생님은 우리를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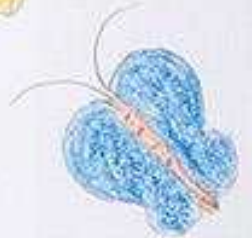
글이 늘지를 안네요.

그러지만 이정도라도 배우나

이제는 자식들에게

편지도 써 볼수도 있고 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 만큼 알수 있네요.



작품명 배움

출품자 배운선

소속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 책가방 새주인

최순자

아들이 첫알바해서 산 아들의 책가방  
'아들' 책가방과 얼마 곁을 떠났다.  
새보금자리로 갔다

주인없는 책가방이지만 쓱쓱 쓱쓱 씻어놓았다.  
2018년 3월 5일 학교에 입학하게 된 '엄마'  
2래! 아들 책가방 주인이 되자.

즐거움 마음으로 책가방과 함께 등거에 들었따.  
배움의 문턱에 선 나는  
아들과 책가방 에 고마움을 느낀다.

학교를 다니지 1년이 지나  
아들의 이름도 영어와 한자로 쓸수있다.  
가방아 옛주인의 이름 한번 써보자.  
janu myung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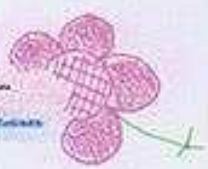
와 신난다! 새주인 와이팅!







나를 살린 아들 전화



구현도



백세 시대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사는  
팔십 사세 할매가 문해 교실에서  
글 배우는 재미로 산다

어느날 서울 사는 아들이  
통영 출장 와서 안부 전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소리는 들리는데  
내 대답은 개미소리

놀란 아들 한달음에 달려와  
병원가 사진찍고 검사하네  
뒤통에 싹땀줄이 터졌단다



천만다행 아들 전화로  
빨리 손 쏜 덕분에 치료 받고  
열심히 운동 하고 있다

아들 하는 말 집에 왔지 말고  
'문해 교실 다니소' 란다  
그말 듣고 오늘도 열심히 다닌다

아들이 살린 남은 여성  
하루하루 보람있게 살아야 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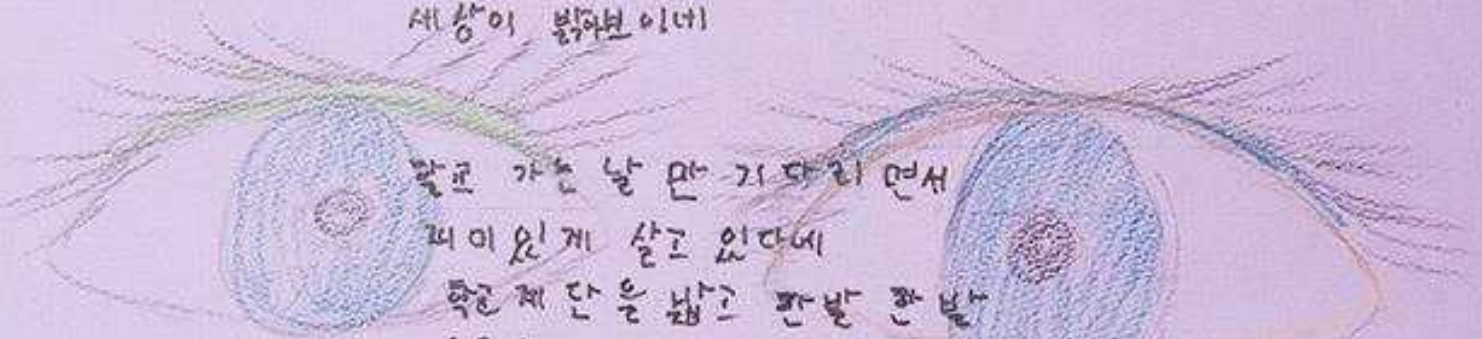
# 눈이 번쩍

내가 평생을 살면서  
한글은 모르? 살았네  
글을 모를 때는  
세상이 캄캄 했는데

신계이



지금은 글을 배우니  
세상이 밝아보이네



앞으로 가는 날만 기다리면서  
피이있게 살고 있다네  
학문 제 단을 뚫고 판발 판발  
오르는게 행복인 줄 몰랐네  
여름 길에서 놀릴까 봐  
말이 망설렸어

지금은 글을 배워 자신이 생겨서  
눈이 번쩍 보인다

큰 딸이 어머니에게 쓰는 편지  
서필남

보고싶은 우리엄마

팔십둘에 돌아 가셨는데

내나이가 팔십 둘이네요

엄마 너무 보고 싶네요

이제 사글을 배워 편지를

써 봅니다 처음에는 딸 아무것도

없는 종가집 맘머느리로 보내놓고

걱정만 하다 돌아가신 우리엄마

큰 딸이 모든걸 이겨내고

잘 살아 왔으니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작품명 큰 딸이 어머니에게 쓰는 편지

출품자 서필남

소속 창녕군청 찾아가는 마을문해교실

# 가을공부

최정희

가 가

가을인가

앞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다  
뜰에는 곡식들이 누렇게 익어들어  
가까거거 크게 소리친다  
가을이 왔다

거 거

가을은 바쁘다

논으로 밭으로  
다람쥐처럼 바쁘다  
그래도 즐겁다  
바쁜 만큼 거두어들이니까  
가을은 즐겁다

네 늦깎이 공부도

가을처럼 수확하고 싶다  
그러서 바쁘다  
하하히히 배우는 만큼 즐겁다

여

거

하

하



작품명 가을공부

출품자 최정희

소속 밀양시청 찾아가는 한글사랑 내디딤교실



# 엄마의 위로

한울학교 이길순

나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내 나이 6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나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못 했다.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려온다.

나는 꼭 받고 싶은 게 있다.  
그건 엄마의 위로가 받고 싶다.  
죽어서 저 세상 가서라도 받고 싶다.  
엄마의 위로.



# 내가구십 평생 살아온 길

한울학교 박분조

나는 93년도 신마산에서 포장마차를 했어요.

진동에서 작은 배로 가지고 번개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가 우리 전포에서 술을 먹고 나갔다가

이십분 만에 들어와서 자기 앞치마를 달라고 했습니다.

냉장고 앞에 놔놓고 갔는데 없어졌다고

내보고 돈을 내나라 했어요 순경이 우리 전포로 와서

밥술도 열어보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했습니다

내가 글을 알았다면 떠졌을 텐데...

삼일만에 파출소에서 돈을 찾았다고 전화가 왔어요

나는 목이 곱 잠겨서 말도 못하고 기절을 해서

동마산 병원에서 일주일 만에 왔어요

돈을 찾아준 기사아저씨한테 인사도 못하고

기슴속 항상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했어요



물지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홀로 간 내 청춘 내 나이  
 잘한 것도 없는데 물지마세요  
 요즘에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  
 서로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너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말아라



우리 대한민국  
 만세  
 교장 선생님  
 담담 선생님  
 감사합니다  
 학교에 열심이  
 다니겠습니다  
 사는날 가지



《사천 곤명중학교 문해학교》

《크 크나 신나는 인생》  
 중국에 래글이 빛카네.  
 4월에 종소리 울리네.  
 8월 15일: 광복절!  
 일본서래어나 ㅈ니크~하  
 공부중에 대동아 경쟁 열리나  
 외남해서 공부를 못했네.  
 한글을 몰라 내 아이를 공부할적  
 아개 벌어로 배운글 반장이 어렵네.  
 8.9일 나이에 한글 배우러  
 머리속에 안들어 가네  
 그래도 공부 보다 온심님 친절과  
 노인학생 웃음에 살아나네.  
 신나는 뜻각기 인생!

송림 정봉선

# 내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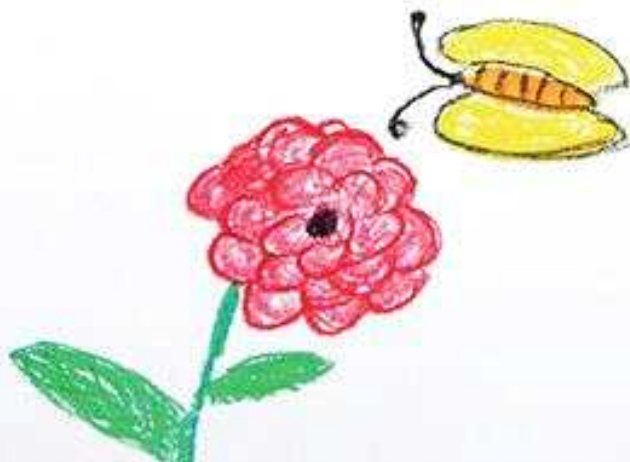
지혜반 이기순 83세

아침에 공부하러 갈때면  
밝은해가 새마음을 환히 비추어준다.

푸른하늘과 푸른 바다가 끝없이 넓은것 처럼  
나의 공부의 배움도 끝이 없다.

오늘 배워도 내일이면 잊어버리지만  
하면 되겠지 하고 열심히 해본다.

공부하러오는 발걸음은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둥글 둥글 살아보자.





# 그리운 남편

김명자

신재호 남편  
김명자 잘 심시다  
그리 빨리 여살을 모르고  
말도 함부로 하고  
너무 후회 뵙니다

신재호씨  
너무 보고 싶습니다  
천년 만년 같이 살 줄 알고  
말도 함부로 했습니다  
너무 후회 뵙니다

신재호씨  
저 칼여까지 다른 여기는  
만나지 마세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 나의 배움터

주애자

복지관이 셀레인타  
복지관은 나의 행복터  
복지관을 간다

왜냐하면

친구가 있다

꿈이 있다

배움도 있다

나는 오늘도

배움터로 향한다



# 손 따로 연필 따로

고성 산북학당

김상순 (80세)

연필 잡은 검고 굵은 네 손가락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열심히 쓴다  
나는 아래로 연필은 옆으로  
나는 옆으로 연필은 아래로  
나는 힘을 주면 연필은 흔들리고  
나는 힘을 빼면 연필은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연필 마음대로다  
오늘도 파음먹고 정성껏 썼지만  
아래로 쓴 글씨는 내 굵은 허리 같고  
옆으로 쓴 글씨는 내 얼굴 주름살 같다  
그래도 학당 공부 너무 재미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울 것이다



홍금자

연꽃

나도 꽃이였을 때가 있었다  
나도 지고 나도 지고  
이별 때가 짝 더구나



# 배우는 즐거움

성산노인복지관 박순임

복지관 한글반에 가는 날  
설레는 마음으로 책가방을 챙긴다  
곰지 화장을 하고  
복지관으로 간다



복지관 입구  
야트막한 언덕길도 정답고  
길가의 벌나무 가로수들도  
진초록으로 한껏 푸르다



조금은 수줍게 교실로 들어간다  
여기 저기서 친구들이 반겨 주고  
한참 수다를 떠다  
선생님이 오시고 수업이 시작된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토끼처럼 꿇긋 커를 세운다  
수업시간마다 언제나  
내 마음은 즐겁고 희망이 넘친다



# 시이소가? 배우소가?

최성자

배우소 배우소 글 배우소  
아이쿠 마라라 마라라  
더 배우서 뭐 하겠노  
아이다 아이다 모리모 배워야제

고혈압 관절염 병이 많소  
아이쿠 마라라 마라라  
더 배우다 사람 잡겠소  
아이다 아이다 모리는 것도 병이제

시이소 배우소 시이소오  
아이쿠 마라라 마라라  
티 시이소오 다보 어지럽제  
아이다 아이다 평생 그럴꺼다



# 내 나이는

이을연

1

2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입니다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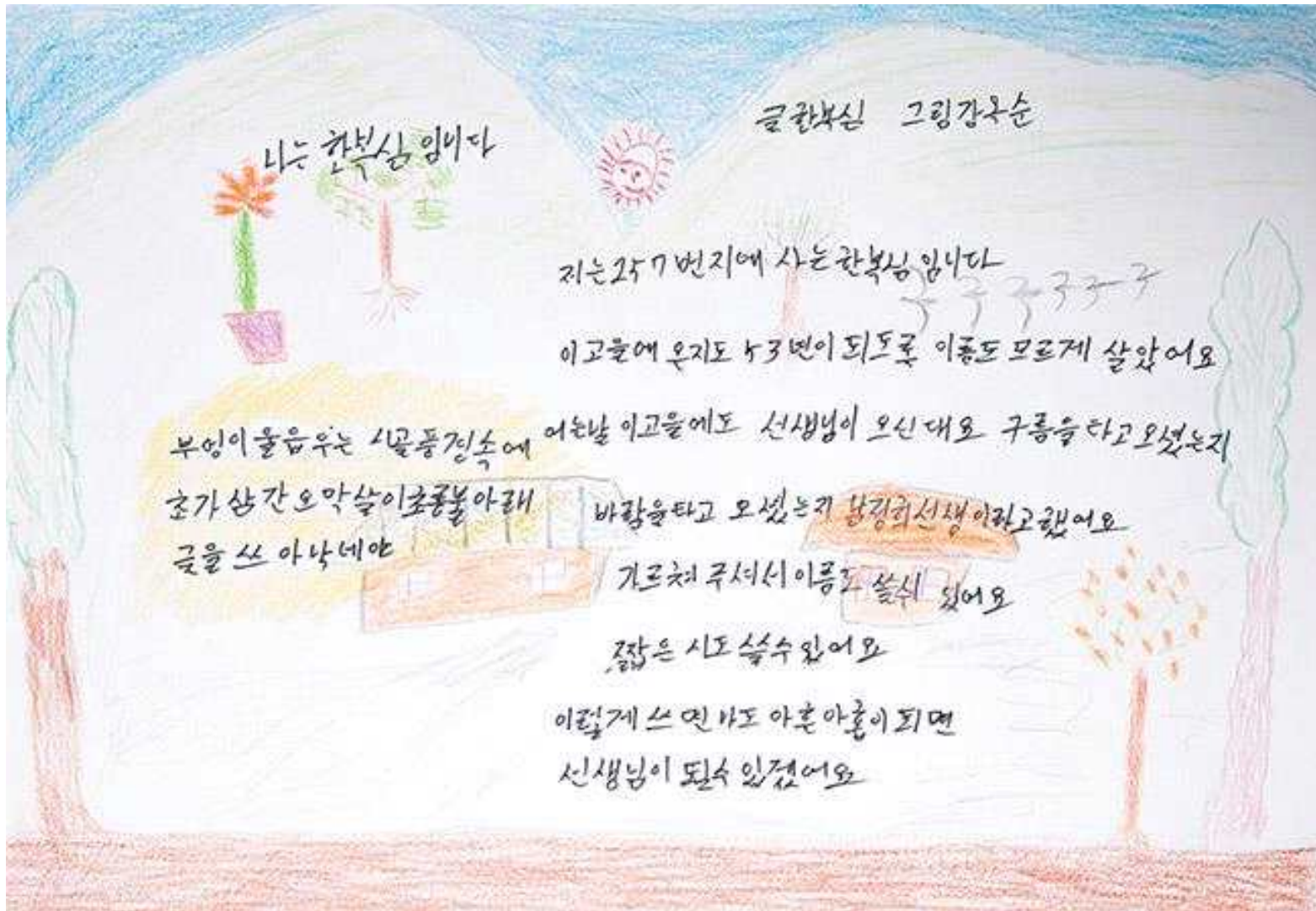
6

7

10

9

8



글 한복심 그림 강구순

나는 한복심입니다

저는 257번지에 사는 한복심입니다  
 이고글에 온지도 53번이 되도록 이글도 모르게 살았어요  
 어는날 이고글에도 선생님이 오신대요 구름을 타고 오셨는지  
 부임이 올때는 시골풍경속에  
 호가삼간 오막살이 초롱불 아래  
 글을 쓰 아낙네야  
 바람을 타고 오셨는지 남경희 선생이라고 했어요  
 가르쳐 주셔서 이글도 쓸수 있어요  
 잡은 시도 쓸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나도 아흔아홉이 되면  
 선생님이 될수 있겠어요



# 내가 살아온 길

문영숙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갔습니다

어렸을 때도 일하느라고

촌에 논, 밭, 소, 먹이고

촌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글을 못배워서 직장에서 많이 무시도 당했어요

사람들한테 기도 많이 죽었어요

한글을 배우고 직장에 가서 땀땀하게

살고 싶습니다

친구들한테 문자도 쓰고 글자도 틀리지

않고 잘쓰고 싶습니다

자식한테 부모가 못배운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자식한테도 한글을 가르치지 못하고

나의 모든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서류 하는데 글도 못썼습니다

너무 부끄러웠 습니다

한글을 너무 배우고 싶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박춘인

다들 회장이 공부하는 성님을 거의 담당하는  
박씨가 있네요.

우리 선생님께 나에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귀의를 주다가 만날 선생님께 나에게도

책을 주시면서 귀때고유에 도움이 된다고

숙제를 내어주었다. 밤에 혼자

글공부하니 좋다.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생각도 하게된다

좋은 사람 착한 일 고마운 사람들 두말한 뒤

일생은 아니지만 손조롭게 한평생살아

온정을 감사한다. 뒤돌아보면 모두가

좋은 사람들이다. 항상 좋은 마음으로

고마운 생각과 지금처럼 모두다

같이 빛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

고마운 사람



내인생 새로운 시작. 배움

공부가 하고 싶어서

박정자

무마른 나는

소문을 듣고 도서관에 찾아왔네

두근 두근


콩닥 콩닥

웃으면 어찌지.....

그 근신 데 학생들이 반갑게 맞아주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네.

소리 내어 읽기도 하고

그  읽기도 하고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내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열심히 하는 우리들

창조된 교실입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박점순

태어나서

제일 하고 싶었던 공부

가 나 다 큰...은 자음

ㅏ ㅑ ㅓ ㅕ...은 모음

이제 공부해서

무얼 하겠나 싶었던 공부

일기 라는 것도 써 보는

신기한 한글 공부

내 색은 안 해도

소원이었던 글공부

읽고 쓰고

참 좋구나



장미 인생  
높은 것이 서러워서  
한자 적어 봄니다  
배인 생이 언제나 장미와  
갈을 줄 알았는데 어드사  
백발이 되었네 세월이 너무나  
약속 해대도 참 허무  
해대도 어찌면 좋은가요  
생각이 가지 양대도  
지금은 행복 해오



# 보고픈 영감님께

고성군 구학포 학당 최무선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데리고 산다고  
40년 시간이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다시 못을 변경을 가신지도 10년이 되었군요  
막상 돌아 가시고 나면 농협일도 못보고 할까 봐  
한글을만 가르쳐서 후회스럽다고 했는데  
이제 아무 걱정마시고 편히 쉬세요  
구학포 학당이 생겨서 하늘에 제신 영감님께  
이렇게 편지도 쓰고 농협일도 잘보고 있으니  
나를 혼자 두고 갔다고 슬퍼 마세요  
모두가 떠나는 길이니 걱정 마시고  
세월이 흘러 영감 곁으로 가는 날까지  
편히 잘 주세요



# 내 평생 한

고성군 군호학당  
강문자

나 지금 공부하고 있소  
못 배우고 자식하나 대학 못 보낸 것이  
내 평생 한  
조카대학 간다고  
내 자식 마냥 좋아  
피 같은 돈 선듯 주었지  
내 평생 한 풀길이 열렸네  
월수금 기다리는 시간  
새벽부터 앞논으로 뒷 밭으로  
미친듯이 일하고  
퉁퉁부은 얼굴로 앉은 자리  
오늘은 마 쉬지  
안가면 안되나  
우리영감 놀려도  
내 평생 한 풀러갑니다



# 고향집

김일선

내가 살던 고향집은 도로변  
탱자나무 울타리의 초가삼간  
참새떼가 탱자나무 울타리에  
모여 앉아 조잘대다가 차가 지나가면  
푸덕덕 날아가곤 했다



가을이면 회색빛 초가지붕에  
누런 호박이 텁성 텁성 달려 있고  
장독대 옆엔 봄송아가 피어있던 고향집  
참새떼 누런 호박 초가지붕 봄송아  
모두다 보고싶고 그리대